

<나의 삶 나의 하나님> 70년 의사의 길 접은老 의사

문창모 장로, 그는 1931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후 꼬박 70년 동안 의사의 길을 걸어왔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라를 잃었던 일제시대에도 그랬고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그랬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환자였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오전6시 부터 밤늦게 까지 병원에서 진료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문을 연 것은 평일에 병원에 오기 힘든 직장인들이 출근 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환자를 최우선시 하는 그의 신념은 잠시 의정활동에 참여했던 기간에도 변함이 없었다.

“ 지난 92년 고 정주영씨가 국민당을 창당하고 저를 전국구 1번에 배정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새벽에 진료를 하고 국회가 시작되는 10시 까지 부리나케 달려가 보면 의원이란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와 있어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심시간에 원주로 달려와 진료를 하고는 저녁에 또 국회로 갔습니다.”

교통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원주까지는 만만한 거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노구를 이끌고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던 것은 무슨 일이든지 말하면 열심히 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10여 년 전에는 경찰관이 손을 묶은 채로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 문장로는 치료를 마친 후 그를 꼭 붙잡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회개해야 한다며 설득을 했다. 다음날 경찰관이 찾아와 그가 밤새 소리 지르며 울었다며 무슨 약을 먹었냐고 물었다. 문 장로는 신약과 구약을 줬다며 웃었다. 얼마 후 그 죄수환자가 사형집행장으로 가면서 “ 나는 지금 천당가는 길” 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문 장로는 남들이 갖기 힘든 기록을 하나 갖고 있다. 종합병원 4군데의 원장직을 맡아 봉사한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장, 인천도립병원장, 국립마산결핵요양소장, 원주연합기독병원장 직을 맡아 헌신했고 한센시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90여년을 이처럼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살아온 그를 위해 지난 3월31일 강원도 원주시 학생동 문이비인후과 의원 앞마당에서 조출한 잔치가 벌어졌다. 문 장로가 70년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정말 열심히 퍼왔던 인술을 마감한 것이 아쉬워 가까운 친지들이 조출한 은퇴식을 마련한 것이다.

“ 100살까지 환자를 돌보려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손이 마비돼 의료기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 진료를 그만 뒀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세월의 무정함을 아쉬워하는 듯한 노 의사의 격양된 고백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 의사는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직업입니다. 정성스레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저는 평생을 특별한 취미도 없이 환자들보는 일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문 장로는 96년에 자서전을 펴냈다. ‘ 천리마 꼬리에 붙은 쉬파리 ’. 보잘것없는 쉬파리도 천리마 꼬리에 붙어있으면 천리를 단숨에 날아갈 수 있듯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신앙고백이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QT하는 길보리교인'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3권 1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4월15일
☎269-8677/021-292-1639,☒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대답해주세요

누 죄로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요?

A 남편은 안수집사로 교회 생활도 충실하며 열심히 하고 이제 막 레지던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약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른 둘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른 손가락이 모두 없는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얼마나 우리 부부는 손을 맞잡고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을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Q 먼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하나님을 향해 이런 아픔을 호소하셨습니까. 지체 장애자를 가진 모든 부모의 마음에도 자매님처럼 그런 똑같은 아픔과 괴롭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자매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딸을 자매님에게 허락하셨는지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서럽고 아픈 심정만 호소하지 말고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지체 장애를 가진 자식을 주셨는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섯 손가락이 없이 태어난 것은 자매님의 죄도 아니고 남편의 죄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야단해도 따님의 손가락들은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그걸 받아드리고 인정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해나갈 것이 있습니다. 따님이 이런 손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믿음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딸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따님의 지체 장애를 받아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 되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또 태어날 터인데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런 손을 가지고도 손가진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따님으로 길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따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따님으로 인해서 부부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길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욱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따님으로 클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닮이 승리하십시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159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62(부활절)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50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정희자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15:20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부활의 첫 열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55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4월 예배 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time봉사	안내:김교섭
4/1	이영권	김영태	최재학, 노은숙	한 건, 김시옥	최재학, 정희자
8	임혜자	김영길	김교섭, 정희자	김성국, 안은주	박일영, 임혜자
15	정희자	김교섭	김시옥, 장선주	김교섭, 정희자	최윤호, 송정섭
22	조순정	한은영	김영길, 신경화	박일영, 임혜자	최재학, 정희자
29	최윤호	한 건	박일영, 임혜자	김영길, 신경화	박일영, 임혜자

'2001년 교회포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새벽기도: 6:00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잠언: 2명. 전도서. 아가: 1명
- 2001년 교회목표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경건의 시간' 생활화
*실천사항: <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 성경, 찬송"
-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모두 기뻐하며 영광드립니다.
- 친교식사: 예배후 함께 식사나누면 교제를 갖습니다
- 고난주간 매일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 Easter Monday 낚시대회
*내일 갖습니다. 함께 즐거운 교제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 성숙자반 성경공부 : 이번주까지 휴강합니다.
- 교우를 위한 인터넷 강좌(e_mail, 인터넷): 금주 금요일에 갖습니다.
*일시: 4월 20일 저녁 8시-10시(2시간)
*장소: Cyber City *참가비: 1인 \$12, 부부: \$20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금주간에 여러 이웃교회들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안내문 참고).
- 4월의 교회력과 모임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8일	종려(고난주간)주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9-14) 성 금요일예배
15일	부활주일	Easter Monday 낚시대회
22일		인터넷강좌. (20일)
29일	이삭줍기봉헌	

